

충남도민 인권선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 2014. 10. 13. 선포.

천안시 개요



부뜰 소개



부뜰

페북페이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2017년 지역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인권교육 역량강화 및 지역 인권문화 증진을 위해 결성한 인권단체입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인권교육 및 상담, 인권활동에 연대합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buttlecn2022@naver.com

인권길라잡이들이 바라는 우리동네

황지미, 김춘옥 (이주여성, 천안 시민)



“천안 버스안 전광판에 영어가 나오면 좋겠어요
서울이면 전철 안에도 중국어, 일본어 나오는 것처럼 천안시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없는 살림에 택시까지 타야 하니까요”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어떠한가의 연속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떠들떠들 한국어 안내판을 읽고 타는데, 늦으면 어떠하나, 여기가
아니면 어떠하나, 물어봤는데 기사님이나 승객이 못 알아들으면 어떠하나.
그래서 그냥... 가겠지, 맞겠지, 조마조마하면서 탈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이 아니면
남편에 의지해서 다닐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남편도 점점 귀찮아하지 않겠어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이주여성들을 더욱 독립적인 여성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배은경 (인권단체 한뼘, 천안 시민)



“스물셋에 처음 휠체어를 갖게 되기 전까지는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하늘을 못 보는데 가끔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나가면 하늘부터
쳐다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하늘보고 별따기>라는 시인데, 장애인들이 일을 하든, 여행을 하든,
뭐라도 하려면 우선은 하늘을 봐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N분 도시든 뭐든 다 좋은데,
장애인들이 최소한 하늘을 보러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여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는 말 할 것도 없어요. 율록불록하고 군데군데 벽돌빠진 보도블럭을 한 10분만
휠체어 타고 갔다오면 하도 덜컹거려서 집에 오면 몸살이 다 납니다. 운전자들은
뭐라고 하는데 휠체어타는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는 이유가 이거에요. 인도가 좋아져서
위험한 도로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인기계나 누르는 자동문도 저같이 손을 못 쓰는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데,
공공기관에 그런게 설치되어 있으면 나는 시민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환, 최효한, 홍유진 (고등학생, 천안 시민)



“이번 인권지도 제작을 위해 터미널근처를 다녀보니 평소 관심없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시설들이 많이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생활체육시설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요.”
“인권지도 제작으로 천안시, 더 나아가 충청남도에 인권친화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은하 (시민단체회원, 천안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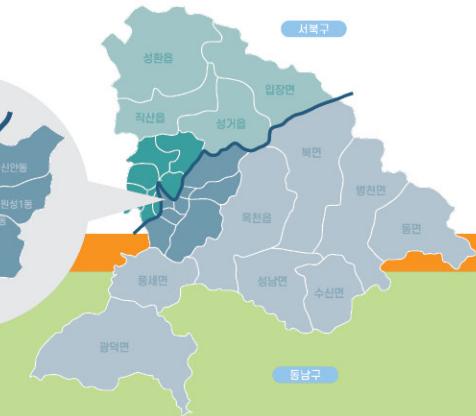


“천안종합터미널 부근은 다양한 배경과 이해를 가진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천안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 공간에서 여러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를 좀 더 좋게 바꿔보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사유지라고 해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과연 그저 한 기업의 사유재산이지만 할까요? 우리 천안시민들이 그저
소비자로만 남지 않도록 그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동네

인

권지도



인권지도 사업 소개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작은 곳,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입니다.
아주 가깝고, 아주 작아서, 그곳은 어떤 세계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은 각각의 사람들의 세계입니다...(종략)...작은 곳에서부터 인권을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
이 없다면 보다 큰 세계에서의 발전도 헛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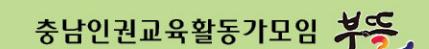
- 195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10주년 기념 ‘엘리노어 루스벨트’ 연설 중

인권이 시작되는 곳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가정, 사무실, 학교 등 지역사회 작은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차별없이 평등한 정의, 평등한 기회, 평등한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인권은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동네 인권지도>는 충남도민인권선언, 충남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도민인권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의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공동체를 인권의 눈으로 살핀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인권길라잡이들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이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천안의 문성동과 신안동 인근 지역(천안역~
천안터미널 구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웃 마을에 내세우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점도
있고, 이동권, 문화권 및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적 장면도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고,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한 장기적 과제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위해 앞으로 긴 걸음, 서로 손을 꼭 ‘부뜰’과 함께
걷겠습니다.



1

학교근처 인도가 위험해요



병원 지하주차장 입구이면서 전용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이라 차량이 빈번히 드나드는데 반해 길이 좁아요.
바로 뒤 초등학교가 불과 1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권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요.



2

천안역 앞 인도



장애인 이동권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도 위험한 보도블럭 정비가 시급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人道)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훨체어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 하나봐요. 훨체어도 보행수단인데... 올록볼록하고 군데군데 벽돌 빠진 이런 길로는 장애인 사람은 다닐 수가 없어요. (천안시민 배은경)



3

천안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경사로를 마련해두었지만 단차가 너무 심해 훨체어 진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시민 모두의 접근권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바꿔기를.



4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2층 체력단련실 등 출입을 위해서는 여기로만 다녀야하는데 계단만 있어 접근이 어려워요.



이랬던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before

after

5

천안역 지하쇼핑몰



쇼핑하는 이주민들이 꽤 있지만 영문 등의 안내가 전혀 없어요.
문화다양성을 보장한다면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올 것 같아요.



낡은 화장실이지만 경사로도 견고하고,
장애인 화장실칸도 널찍하며 청결해서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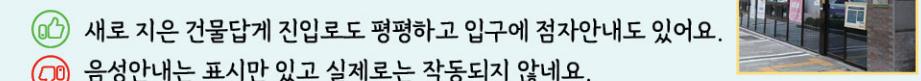


우리동네 인권지도(천안역~천안터미널편)

* 인권길라잡이들이 2022년 8~10월간, 천안역~천안터미널 일대를 직접 다니며 인권의 눈으로 살핀 내용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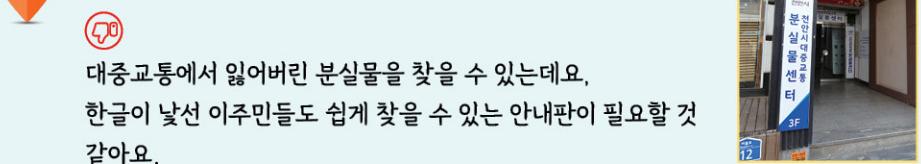
6 천안시 노인회관



새로 지은 건물답게 진입로도 평평하고 입구에 점자안내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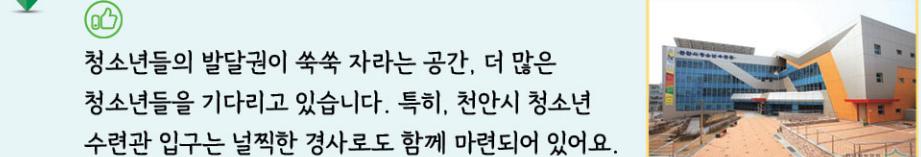
음성안내는 표시만 있고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네요.

7 천안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글이 낯선 이주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8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의 발달권이 쑥쑥 자라는 공간, 더 많은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입구는 널찍한 경사로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요.

9

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한글로만 된 버스 안내, 큐알코드 등 활용해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어떡하나의 연속이에요.
서툰 한국어로 떠듬떠듬 읽고 탄는데. 늦으면 어떡하나, 여기가 아니면 어떡하나,
몰라봤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천안시민 황지미, 김춘옥)



10

백화점 앞



여기가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천안의 랜드마크에요.
근데 시민 캠페인이나 1인 시위를 하려고 해도 사유지라고 눈총받아요.
여기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천안민주광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천안시민 박은하)



11

파출소 옆 중앙공원



공원 입구 중앙에 배수로가 위치해 있고 산책로 바닥도 유아차, 훨체어 등의 진입이 어려워요.



12

천안시 꿈드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노래방이나 카페 많이 가요. 여기는 아니었지만 저희동네(천안) 청소년 시설 갔었는데 친구들이 랑방 예약해서 과자먹고 놀려고 했더니 공부나 회의하는 사람들만 빌려준다고 해서 그 뒤부터는 안가요.
(천안시민 이영환, 최효한, 홍유진)



13

신부문화공원



넓은 공간과 무대, 대기실 등이 있어 종종 행사가 열려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담배공원이라고 불릴만큼 흡연자들이 많은데다 쓰레기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문화공원'이라는 이름답게 시민들의 쾌적한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14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지은 건물답게 입구 점자·음성안내 모두 잘 지원되네요.



이랬던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